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장기금리 상승세로 경기회복에 먹구름

□ 최근들어 일본의 장기금리(10년물 국채 수익률)가 일본과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정책의 영향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.

- o 일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 하락과 엔화강세의 영향으로 10월 말까지 줄곧 0%대를 기록하였으나, 이후 가파르게 상승해 11월 29일 현재 1.18%를 나타내며 10일 연속 1%를 상회함.
- o 최근 장기금리 상승세에 대해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는 나고야에서 열린 한 경제지도자 모임에서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총 6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는 등 추가 금융완화정책을 시행하고 일본도 장기국채매입금액 증액을 통해 양적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데 따른 효과라고 분석함.

□ 일본은행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전문가들은 최근의 장기금리 상승세가 시중금리 인상을 유도해 자금수요 침체를 가속화시켜 경기회복을 둔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.

- o 일본은행 총재는 최근의 장기금리 상승세가 경기회복에 대한 과도한 부정적 시각이 후퇴하고 포괄적인 양적완화정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징조임을 강조함.
- o 그러나 장기금리 상승 움직임이 기업 대출금의 인상을 부추겨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일 뿐만 아니라, 은행권의 장기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을 유도함으로써 가계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등 침체된 자금수요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우
- o 따라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국채 증발에 따른 수급악화에 대한 우려와 미국 등 해외금리의 상승으로 장기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일본의 경기회복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(FujiSankei Business I, 11/30)